

## 한국교회, 헌금이 줄고 있다!

한국교회의 재정적 근간인 헌금이 단순한 양적 감소를 넘어 '구조·인식의 변화'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한국교회 헌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와 성도 모두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헌금 수준이 '줄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교회 규모에 따른 '재정 양극화'이다. 500명 이상 중대형교회는 헌금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48%)에 달한 반면,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감소했다는 응답(44%)이 훨씬 높아 교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넘버즈 321호>에서는 헌금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성도들의 가치관 변화를 짚어보고, 재정 감소 시대에 접어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재정 관리와 사역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회 헌금 실태와 인식 조사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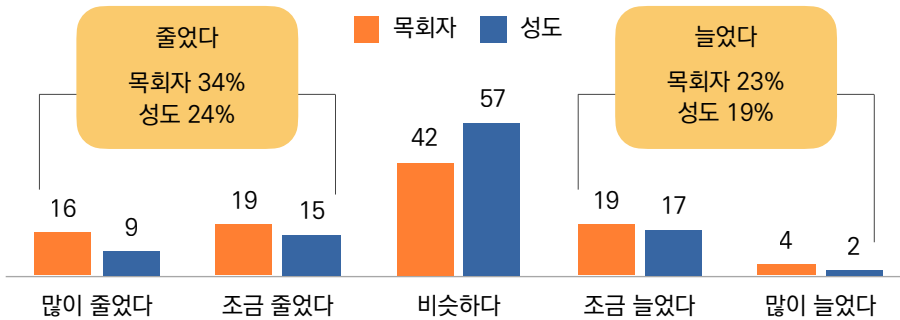
구분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19세 이상 개신교인(교회출석자)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표본)	총 5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한 URL발송)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5월 15일 ~ 2025년 5월 22일 (총 8일간)	2025년 6월 2일 ~ 2025년 6월 10일 (총 9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 희망친구 기아대책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01

## [헌금 변화 추이와 원인] 한국교회, 헌금이 줄고 있다!

- 한국교회 구성원(목회자, 성도)이 체감하는 헌금 수준은 증가보다는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대상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현재 헌금 수준을 묻은 결과, '줄었다'는 응답이 34%로 '늘었다'는 응답(23%)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 성도들의 경우도 비슷했다. 최근 3년간 헌금 수준 변화에 대해 비슷하다는 응답을 제외한 증감 비율만을 살펴보면, '줄었다' 24%, '늘었다' 19%로,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줄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최근 3년간)\* 헌금 수준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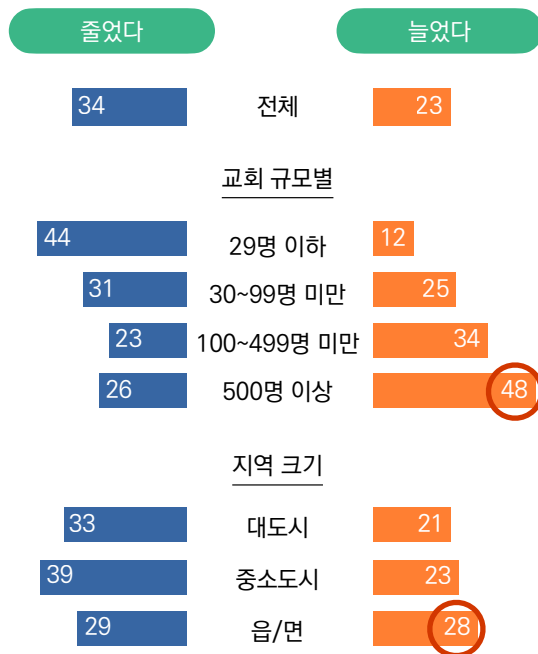
\*목회자 질문 : 코로나19 이전 대비 목사님 교회의 헌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성도 질문 : 지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귀하(배우자 포함)의 헌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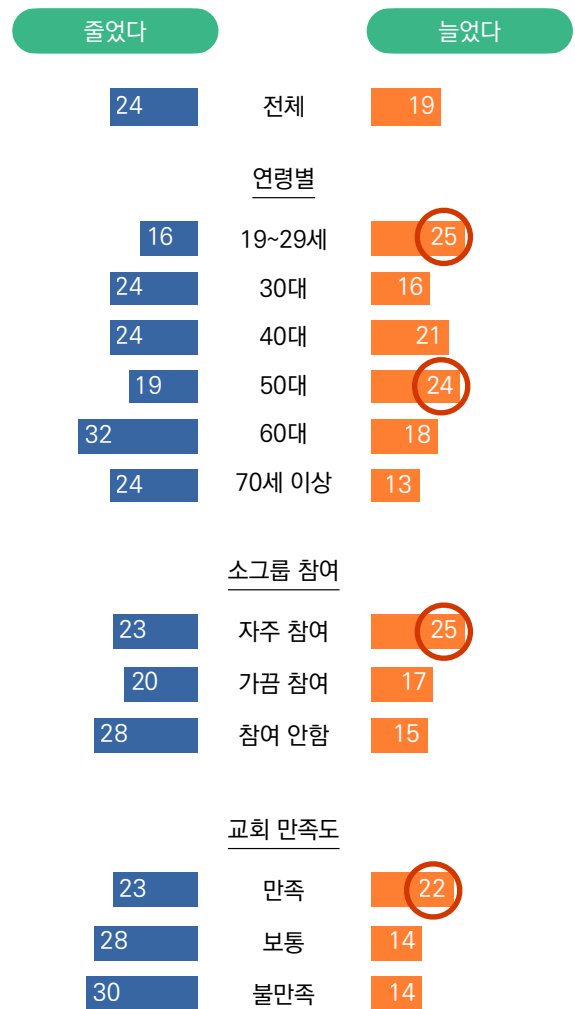
## 헌금이 증가하는 그룹 :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 소그룹 참여도 높은 자!

- 한국교회의 헌금 변화가 교회 규모와 지역, 성도의 소그룹 활동 수준 등에 따라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 목회자 조사 결과, 500명 이상인 중대형교회는 '늘었다'는 응답이 48%에 달했으나,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줄었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나 큰 대조를 이뤘다.
- 성도의 경우 20대(25%), 50대(24%)와 소그룹 참여도가 높을수록(25%), 교회 만족도가 높을수록 '헌금 증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헌금이 '줄었다' 응답은 60대(32%), 소그룹 미참여자(2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헌금 변화 (목회자, %)



[그림] 최근 3년 대비 헌금 변화 (성도, %)



## 100명 미만 교회, '중상위 이상' 교인 비율 상대적으로 낮다!

- 성도들의 경제 수준과 교회 규모를 비교해 보면, 교인 수 100명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이 눈에 띈다.
- 100명 미만 교회는 '중상위 이상' 성도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데 반해 100명 이상부터는 13~15%로 2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100명 이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 양극화 심화 요인 중 하나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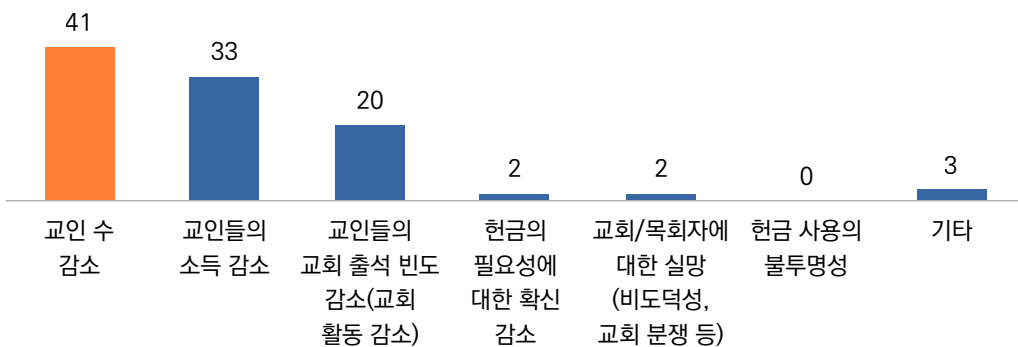
[표] 교회 규모별 경제 수준 (성도)

구분		중하+하	중	중상+상
전체		41%	47%	12%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57%	38%	5%
	50~99명	50%	43%	7%
	100~299명	32%	54%	15%
	300~999명	38%	47%	15%
	1000명 이상	40%	47%	13%

## 목회자, 헌금 감소 이유, '교인 수 감소/소득 감소' 등 구조적 요인 때문!

- 헌금 감소 이유로 목회자들은 '교인 수 감소'(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교인들의 소득 감소'(33%), '교인들의 교회 출석 빈도 감소(교회 활동 감소)'(20%)가 뒤를 이었다.
- 반면, '헌금 사용의 불투명성'(0%), '교회 목회자에 대한 실망'(2%) 등 제도·신뢰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헌금 감소 원인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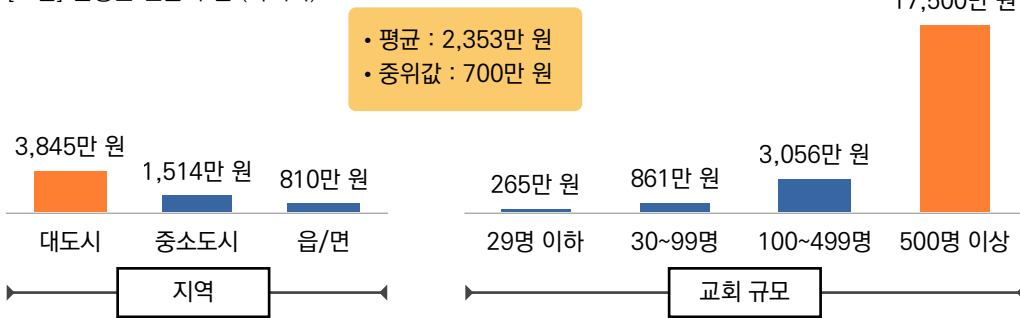
# 02

## [헌금 실태 및 인식]

### 한국교회 월 평균 헌금 2353만 원, 중위값 700만 원!

- 교회의 월 평균 헌금 수입을 살펴보면, 평균 2,353만 원, 중위값은 700만 원으로 집계 됐는데, 이는 소수 대형교회의 자원 집중이 평균 값을 끌어올려 중위값과 큰 편차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과 교회규모에 따른 재정 쓸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 대도시 교회의 월 평균 헌금 수입은 3,845만 원인 반면, 읍/면 지역은 810만 원에 그쳐 지역 간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 더욱 극명한 차이는 교회 규모에서 나타난다. 500명 이상 중대형교회의 월 평균 헌금은 1억 7,500만 원에 달하지만,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265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특정 규모 이상의 교회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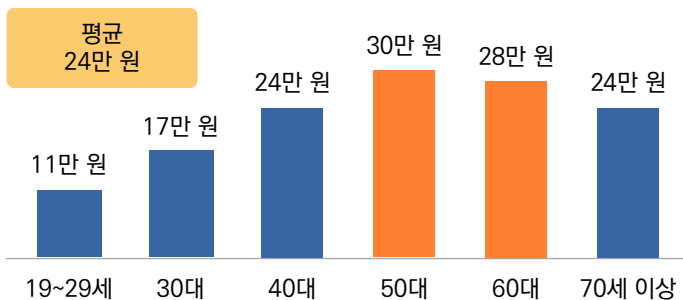
[그림] 월평균 헌금 수입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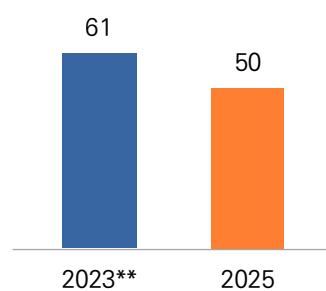
## 성도 월 평균 헌금 24만 원...50대가 가장 많이 낸다!

- 성도가 드리는 월 평균 헌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월 평균 헌금액은 24만 원이었다. 50대가 30만 원, 60대가 2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9~29세의 평균 헌금액이 11만 원으로 가장 저조했다. 50~60대가 교회 재정의 실질적인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 70대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텐데, 이들 그룹이 내는 헌금(24만 원)과 40대 헌금(24만 원)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40대 이하층이 헌금을 상대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 한편,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의 비율은 50%로 성도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조사 결과(61%)와 비교해 불과 2년 사이 11%p나 하락한 수치다.

[그림] 연령별 월 평균 헌금액 (성도)



[그림] 십일조 헌금 '정기적으로 드린다' 비율\*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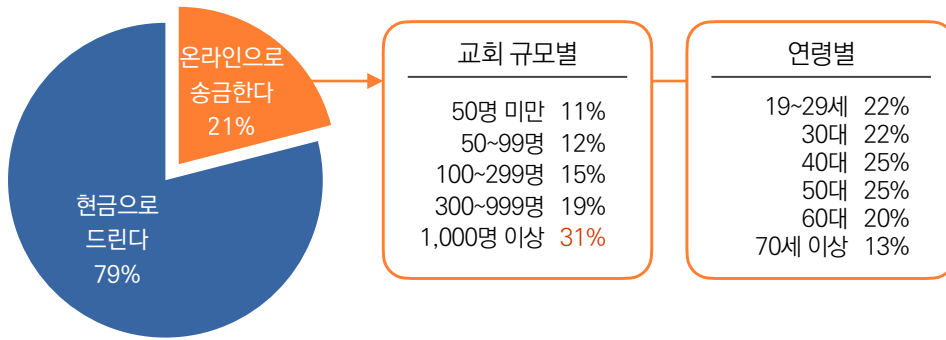
\*3점 척도(정기적, 비정기적, 드리지 않음)

\*\*2023년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5.(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 성도 5명 중 1명, 온라인 헌금 드린다!

- 헌금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헌금을 방식을 묻은 결과, ‘헌금으로 드린다’ 79%, ‘온라인으로 드린다’ 21%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대형교회일수록 온라인 헌금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층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20% 안팎의 고른 비율을 보였다.

[그림] 헌금 드리는 방식 (헌금하는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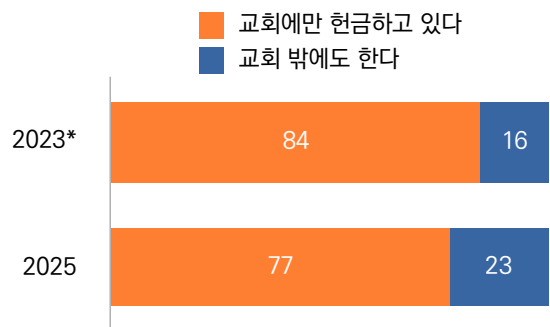
## 성도 44%, ‘헌금은 교회 이외 단체에도 무방하다’!

- 헌금을 드리는 곳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묻은 결과, ‘헌금은 교회에 해야 한다’ 52%,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 해도 무방하다’ 44%로, 성도 절반 가까이가 교회 이외 단체 헌금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특히, 20대에서는 절반 이상인 54%가 ‘교회 밖 헌금’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 실제 헌금을 드리는 곳을 살펴본 결과, ‘교회에만 헌금하고 있다’가 77%로 헌금하는 성도 대부분은 여전히 교회에만 헌금을 드리고 있었다. 다만 이 비율은 2023년 84%에서 7%p 감소하며, 헌금처가 교회 밖으로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표] 헌금 드리는 곳에 대한 인식 (성도)

구분	헌금은 교회에 해야 한다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 해도 무방하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52%	44%	4%	100%	
연령	19~29세	37%	54%	10%	100%
	30대	48%	47%	6%	100%
	40대	53%	41%	6%	100%
	50대	48%	51%	1%	100%
	60대	58%	40%	3%	100%
	70대	58%	38%	4%	100%

[그림] 실제 헌금 드리는 곳 (헌금하는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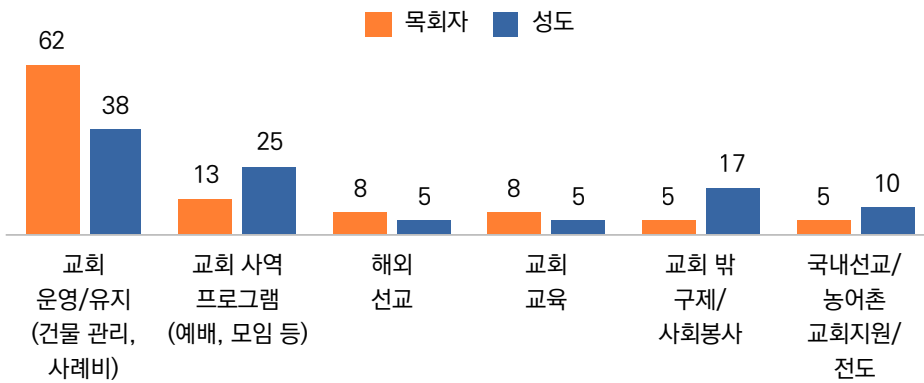
\*2023년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5.(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 03

##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한 인식] 교회재정 집행, 목회자는 교회 '운영유지' vs 성도는 '사역' 우선

- 교회 재정 집행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목회자 62%, 성도 38%가 모두 '교회 운영·유지'를 선택해, 재정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목회자는 성도보다 '교회 운영 유지'의 중요성을 훨씬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성도는 '교회 사역 프로그램', '사회봉사', '국내·해외 선교' 등 운영 외 사역에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전반적으로 목회자는 교회 유지 중심, 성도는 사역 확장 중심의 재정 집행을 기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 간 재정 집행에 대한 인식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 두 그룹 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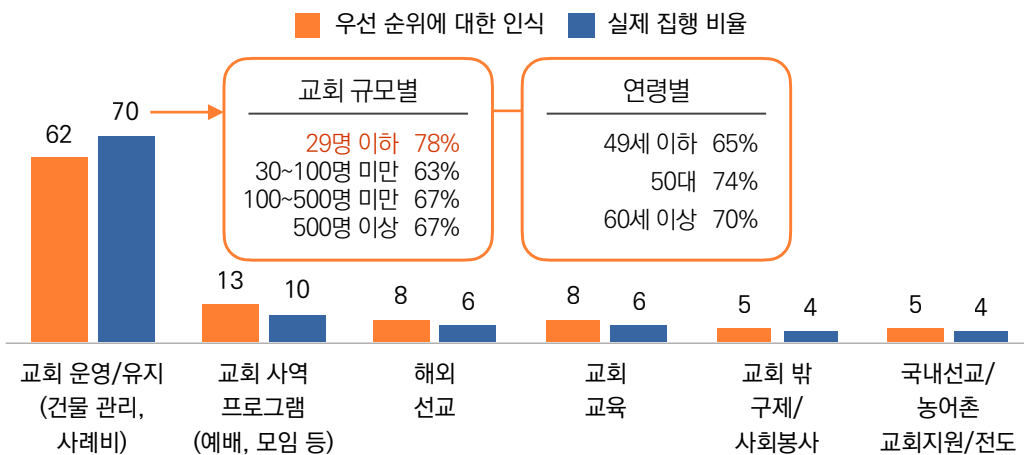
[그림] 재정 집행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항목 (%)



### 실제 재정 사용, '교회 운영비'가 70% 차지!

- 교회 재정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실제 우선적 집행 항목을 비교한 결과, 교회 운영·유지는 실제 집행 비율이 70%로, 우선순위 인식(62%)보다 8%p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항목 가운데 인식보다 실제 집행 비중이 더 높은 유일한 항목이다.
- 교회 운영·유지 집행 비율은 특히 교인 29명 이하 소형교회(78%)와 50대 목회자 그룹(7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재정 집행 우선 순위 인식과 실제 집행 비율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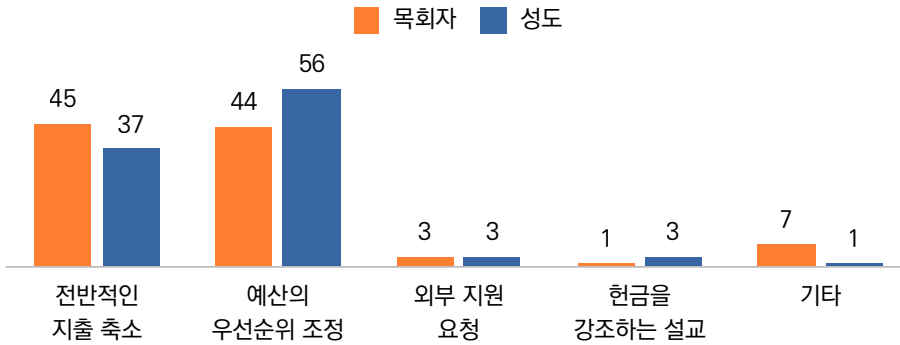
# 04

## [헌금 감소 대응 전략]

### 헌금 감소 대응책, 목회자는 '지출 축소', 성도는 '예산 조정' 우선

- 헌금 감소에 따른 교회의 대응책을 묻은 결과, 목회자는 '전반적인 지출 축소'(45%)와 '예산의 우선 순위 조정'(44%)을 비슷한 수준으로 꼽았다.
- 반면, 성도는 '예산의 우선 순위 조정'(56%)을 '지출 축소'(37%)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두 그룹 간 인식차이가 존재해 서로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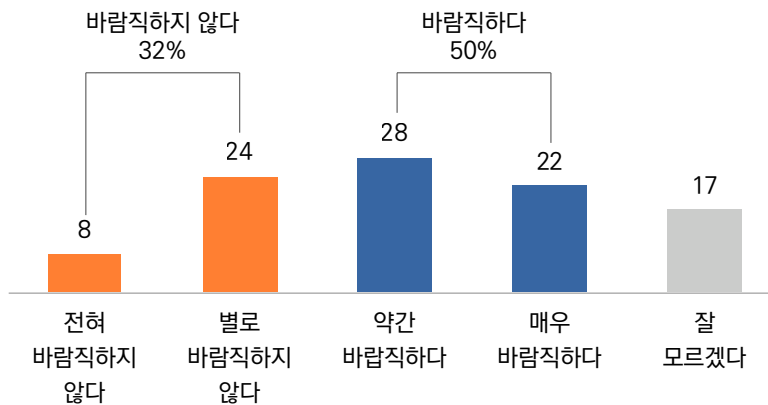
[그림] 헌금 감소에 따른 교회의 대응책 (%)



## 목회자 절반, '고령교인의 유산 기부 운동' 바람직!

- 헌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고령교인의 유산기부 운동에 대해 묻은 결과, 목회자의 절반(50%)이 '바람직하다'(약간+매우)고 응답했다.
-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도 32%로 적지 않았다.
- 전반적으로 유산기부 운동에 대해 긍정 인식이 우세하지만, 신중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고령교인의 유산기부 운동에 대한 인식 (목회자, %)



## 이번호 요약

### 1. 한국교회, 헌금이 줄고 있다

- 목회자 대상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현재 헌금 수준을 묻은 결과, '줄었다'는 응답이 34%로 '늘었다'는 응답(23%)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성도들의 경우도 '줄었다' 24%, '늘었다' 19%로,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줄었다'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2. 한국교회 월 평균 헌금 2,353만 원, 중위값 700만 원!

- 교회의 월 평균 헌금 수입을 살펴보면, 평균 2,353만 원, 중위값은 7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과 교회규모에 따른 재정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 3. 성도 44%, '헌금은 교회 이외 단체에 내도 무방하다!'

- 헌금을 드리는 곳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묻은 결과, '헌금은 교회에 해야 한다' 52%,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 해도 무방하다' 44%로, 성도 절반 가까이가 교회 이외 단체 헌금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성도의 헌금생활 (황원하 저, 생명의 양식)

## 관련 성경 구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 목회 적용점

헌금 감소는 교회의 재정 문제를 넘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번 조사는 헌금이 줄고 있다는 사실보다, 헌금을 둘러싼 인식과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재정의 양극화이다. 월 평균 헌금(2,353만 원)이 중위값(700만 원)의 세 배를 넘는다는 사실은 소수 대형교회로의 자원 집중과 소형·미자립교회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소규모 교회들이 겪는 실제적인 고통이 훨씬 심각함을 드러내며, 교회 간 연대와 지원 체계 마련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성도들의 가치관 변화도 뚜렷하다. 성도의 44%가 '교회 밖 헌금'에 열려 있다는 사실은 헌금이 제도적 의무를 넘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따지는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교회가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헌금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부 영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목회 현장에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사역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헌금이 성도와 교회 사이의 '신뢰의 언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정 집행시 우선 항목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인식이 크게 다른데 이 간격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서로 간의 재정 지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교회 비전 중심으로 우선 순위 사역을 정하는 등 사역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한국교회 트렌드 2026 심플처치 참조). 이를 통해 재정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헌금에 대한 본질적 재교육이 시급하다. 헌금을 교회의 '유지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능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송고한 '신앙 행위'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헌금 감소의 시대를 신앙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